등을 조직하고 1922년에 귀국해서는 북풍회北風會를 만들어 사회주의 운동의 한 분파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좌익계의 모사謀士라는 칭을 들으며 일제하에서 총 9년7월의 복역을 하고 해방후에는 좌익에서 이탈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에 반대하고 한국민주당의 조직부장이 되어 활동했다. 1946년 미소공동위가 결렬되고 한민당이 좌우합작위의 토지정책을 반대하자 탈당하여 김규식을 총재로 하는 민주동맹의 창설에 참여해 상임위원으로서 중도노선을 취하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관선의원이 되었다. 1947년 5월 나승규羅承奎 등과 분쟁하여 민주동맹을 탈퇴해 조선공화당共和黨을 창당해 서기장이 되었다가 1948년 5·10선거에 동래에서 출마해 제헌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초대 국회부의장이 되어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소장파 의원의 지도적 구실을 하다가 1949년 6월 남로당 프락치사건에 연루되어 복역중 6·25사변이 나자 출옥해 월북했다. 북한에서는 1955년에 인민경제대 특설반에 입교했고 1956년 그곳의 평화통일촉진협의회라는 단체의 상무위원 겸 집행위원 직임을 얻고 있다가 1959년 반당분자로 숙청되어 평안북도 벽지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김약수와도 김시현이 모르는 사이일 수가 없고 그가 중도파의 국회중진으로서 프락치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어 들어가는 사태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중도세력은 정치활동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민족진영의 대동단결론을 내세우며 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1949년 8월 20일의 민족진영강화위원회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또한 민주국민당을 비롯한 각정치세력의 이해관계차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전과 같이 지리멸렬한 세력구도가 계속되는 양상이었다. 그리고 6월 이후 이승만정부의 극우반공체제 구축으로 중도세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김시현은 실용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당세를 확장하려는 민주국민당 창당세력의 입장에서도 김시현같이 비중이 큰 인물을 '모셔오기' 전략에 힘을 기울인 터라, 김시현도 당시 최대의 정당세력인 민주국민당에의 참여에 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김규식의 비서실장을 지낸 송남헌宋南憲이, 김규식을 민주국민당의 당수로 옹립하기 위한 포석으로 김시현이 민주국민당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 증언에서 확인이 된다는 게 학계의 설이다.

민주국민당에 입당한 김시현은 이듬해 1950년 5월에 있은 제2대 민의원民議院 선거에서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경북의 고향 안동갑구安東甲區에서 출마했다. 그는 선거 유세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국회에 들어가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제하에서 오래도록 치열하게 전개해온 민족독립운동의 널리 알려진 경력에 힘입어 경쟁자들을 멀찍이 제치고 당선되었다.

김시현은 국회에 들어가 투쟁하고자 민의원에 입후보했다고 하였지만 그는 본디 태생으로 의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즉 자기가 지향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의회의 토의나 의결에 맡겨 해결하도록 하고 보고 있을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소극적 방법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세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나는 들어가서 싸우기 위해 국회로 가보려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내놓고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걸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사전에 약속해 설명하지 않는 이 태도가 건방지다 하여 표를 안주시면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공약을 안동의 지방 유권자들은 별로 주의깊게 해석해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국회에 들어가 뭐라 미리 밝힐 수는 없지만 싸우겠다고 한 것은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밝히지 않으면 표를 안주겠다고 하여도 할 수 없다면서 꼭 들어가 투쟁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때에 김시현이 입후보하여 치른 것이 이른바 5·30선거로 1950년 5월 30일에 투표한 것인데, 이러한 애매모호한 선거연설에도 그는 무난히 당선되었던 것이다.

안동갑구에서 국회의 민의원에 당선되어 그는 6월초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가 당선되어 들어가 의원선서를 한 제2대 국회는 1950년 6월 19일에 개원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원을 구성하여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인 6월 25일, 6일 뒤의 일요일 새벽에 6·25사변이 발발했다. 하도 뜻밖의 기습으로 터진 동란이, 이쪽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궤멸돼 밀리는 형세라 개전 사흘을 넘기지 못한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되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 와중에서 김시현은 미처 남쪽으로 피신도 하지 못하고 서울 시내에 머물고 있다가 인민군에게 붙들려 연행되고 국회의원 신분인지라 요인으로 분류되어 다른 남한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의 성남호텔에 연금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북에서 내려온 정치공작대의 간부 중에 해방전 일제하에서 민족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자를 만났다. 이북에서도 일제하에서 독립을 위해 뭘 좀 했다는 사람은 김시현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터져 동족상잔의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전쟁에 대한 탄식과 걱정을 터놓고 하면서 그 해결 방법 등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워낙 혁혁한 항일투쟁과 명망의 덕에 적치하 서울에서 석달 동안 연금은 되었지만 김시현은 소홀치 않은 대우를 받았다. 1940년에 여운형이 암살된 뒤 월북하여 그쪽의 거물이 된 김원봉金元鳳과 동급으로 무거운 인물로 분류되니 그를 함부로 대할 자도 없고 이북의 간부들도 김시현을 '영입해 모셔들일' 대상으로 삼아 예우를 했을 것이다. 유엔군이 본격 참전하고 맥아더 사령관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9·28수복이 이루어져 서울이 적치하에서 탈환되었다. 인민군이 북으로 퇴각하면서 많은 국회의원과 남한의 요인이 납북되었는데 김시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서울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납북되지 않고 서울에 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남은 것은 없다. 북측에서 그가 협조적인 거물로 인식하여 굳이 납북까지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에 남도록 방임하였거나 또는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탓으로 납북대열에서 잠시 이탈해 잠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수복후 국회에서는 서울이 적치하에 있던 3개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인민군에 체포가 되어서였든 또는 자의로든 간에 적측에 자수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국회의원 자가숙청 특별위원회自家肅淸特別委員會'라는 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김시현도 물론 그 자격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자가숙청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그 명칭은 제법 삼엄해 보였지만 요즘의 국회에 있는 윤리위원회와 같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적치하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고 빠져나와 살아남은 동료의원을 무슨 트집을 붙여 처벌하고자 할 국회의원도 없었다.

<權五焄>

인·물·動·靜

권태균 權泰鈞 조달청장은 1월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추밀공파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近)의 4자인 안숙공安肅公( )계 33세世로 부친 권중희權重熹씨와 모친 진주소晋州蘇씨 사이의 5남 1녀중 넷째이다. 1955년 전북 전주에서 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 등을 지낸 금융통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에 임명된 후 이번에 조달청장으로 발탁되었다. 부인 울산蔚山 김치순金致順씨와 사이 1남1녀를 두고 있다.

권해수 權海秀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2월 13일 한성대 미래관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1년 임기의 서울행정학회장에 취임했다.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2대 회장에 선임됐다. 디스플레이협회는 2월 16일 올해 첫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통해 권영수 씨를 선임했으며 권영수 회장은 이날 퇴임하는 이상환 초대 회장에게 협회와 회원사를 대표해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권혁세 權赫世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월 10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재무부 국제관세과·보험정책과, 재경부 총무과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권봉준 權 埈씨는 2월 19일 충북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 박사는 추밀공파 정헌공계 충정공 후 36세世로 부친 권성택權聖澤씨와 모친 평산平山 신경숙申景淑여사 사이의 2남 중 장남이다. 1971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나서 충북대 대학원 물리과 박사과정 조교로 흥덕구 사창동에 살며 현재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박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값 1,3000원·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